

본당 소식

♣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연중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연중시기 전례

“신앙의 신비여”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삼종기도" - "부활 삼종기도"에서 "삼종기도"로

♣ 제36차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쇄신 목상회 안내

- 주제 :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에페 6,17)

- 일시 : 2026년 09월 02일(수) ~ 09월 05일(토)

- 장소 : Kardinal Schulte Haus, Overather Str. 51-53, 51429 Bergisch Gladbach

- 회비 : 독방 270유로, 일반 250 유로, 학생 190 유로

- 신청 : 2026년 07월 12일까지

♣ 모임 / 회의

- 사목 회의 : 6월 14일 (주일), 미사 후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69.91€ • 교무금 000.00€

전례 성가

입당 :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봉헌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체 : 174 (사랑의 신비)

172 (그리스도의 영혼)

파견 : 63 (온세상에 전파하리)

전례 봉사

이번 주일(6월 7일)	다음 주일(6월 12일)
제1독서 : 허희숙 마리아	제1독서 : 김산영 올리아
제2독서 : 김산영 올리아	제2독서 : 문형민 셈
복사 : 정아인 레나 / 강윤아 헬레나	복사 : 안태리 소화데레사 /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6월 14일

(녹) 연중 제11주일

본기도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 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1독서 (탈출기 19,2-6ㄱ)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2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3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 주어라.

4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5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6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6-11)

형제 여러분, 6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7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8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9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10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11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음 (마태오 9,36-10,8)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36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37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38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10,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3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4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5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6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7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8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평화의 길을 찾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 간, 국가 간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감추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세상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3. 이산가족과 북향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나라의 분단으로 고향을 떠나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이산가족과 북향민들을 보살피시어, 헤어짐의 아픔을 지닌 모든 이가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만남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4. 밀라노 교구 이민자국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저희 밀라노 교구 이민자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